

묘지명(墓誌銘)-장미

장석남
시인

오월 중순 장미들이 꺾충 피었는데
한 가지를 꺾어다가 흰 호리병에 꽂아 두고는
겹겹 싸인 내전을 엿보는데
어디서 온 내력들을
붉디 붉은 문장들로 새겨 두었다
나는 글 배운 바 없어 읽을 수는 없어서
보며 웃을 뿐이었다

공의 성은 장씨이고 휘는 미이며
허공이 고향이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전고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
질문이 있으면 척척 응답하여 의문이 없었다
세상 소인들이 횡행하여 스스로 가시를 내어
멀리하였다

눈 펄펄 날리는 날
이러한 묘지명을 받으러
어느 얼어붙은 빙벽을 방문할 것이다

서너 뺨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받으면서
벌 몇 마리가 잉잉댄다